

협동조합간 연대와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

정설경(서울아이쿱생협 이사장)

1. 생협 사업장 & 활동 거점으로서 강남3구의 특성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 물자를 취급하는 아이쿱생협의 사업장은 현재 송파에 2곳, 강남에 1곳이 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구매력이 있어 사업입지로는 좋은 편이나 만만치 않은 지대비용을 고려하면 진입이 어려운 지역이다. 특히 아이쿱생협 물품은 직거래유통시스템에 최저마진을 취하고 있어 매장을 개설하고도 몇 년이 지나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사업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 물자 보급을 통해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 매장 진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한편 친환경 물품을 취급하는 매장은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판매장의 역할을 넘어 협동조합간 교류와 지역사회 연대를 위해 거점으로 활용하고픈 가칭 ‘협동의 집’(생협센터) 모델을 꿈꾸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실현하고 있으나, 서울에서는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아직 도전해 볼 엄두를 내고 있지 못하다. 공공적 성격을 담은 공간이 확보된다면 협동조합 매장을 이용하는 지역민이 동시에 지역사회의 교류 경험을 갖게 된다. (가칭) ‘협동의 집’은 협동의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 지역사회 협동의 모델을 시도하고 실현하는 사례로 의미를 지닌다.

2. 결사체로서 생협 조직의 특성

생협은 친환경 물품을 원하는 소비자 소수가 시작하여 현재 조합원 규모에 이르렀다. 사무실이 없어 집에서 모임을 갖거나 업무를 했고, 조합원 몇 명을 늘리기 위해서 매일 거리에서 홍보하고, 지인들에게 물품을 홍보하고, 1조합원 1배가 운동도 해 보고, 이런 노력들이 오늘날 생협 법인을 만들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그럼에도 아직 강남 3구 지역은 조합원은 있으나 독자적인 생협 법인은 없다. 아이쿱의 경우, 송파준비위원회, 강남준비위원회가 있고, 한살림도 강남서초지부위원회 형태로 있다고 한다. 이것의 의미는 강남은 대체로 소비자로서 사업은 이용하되 조합원들이 주도하는 활동이 미약한 곳으로, 협동조합을 조합원 스스로 책임지는 성과가 낮은 편이다. 서초지역을 포함해서 강남 3구의 두드러진 특성은 조합원이 주도하여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자치와 자기주도성이 서울의 다른 구에 비해서 약한 편이다.

아이쿱생협은 조합원들 출자와 차입을 통해 매장을 직접 개설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 아직 강남 3구는 조합원 자치가 실현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조합원이 주도하는 사업체 마련이 아직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 협동조합은 이해 당사자들이 주인이 되어 필요한 사업체를 설립하고, 직접 운영하는 협동조합 주인으로 우뚝 서는 것이 본연의 역할인데 강남 3구는 아직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3.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선배 협동조합의 역할

협동조합은 하나의 사업체로서 개별적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ICA가 원칙으로 밝히고 있는 7원칙 중 협동조합간 협동을 통해 더 큰 협동조합의 역할을 밝히고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 이후 생겨난 다종다양한 협동조합이 함께 어우러져 지역 사회가 ‘협동조합 생태계’로 풍성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생협이나 신협같은 선배협동조합들이 일반협동조합과 네트워크를

이뤄 지역 협의체를 준비하고 있는데 공간이나 간식비, 회의 준비 등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어 협동조합 지역별협의회가 창립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신규로 진입하는 협동조합 말고도 오래된 조직으로서 실험은 역사성과 그동안 걸어온 시행착오가 새로운 협동조합들에게 중요한 경험의 자산이 될 수 있다. 금융 협동조합이어서 취약한 협동조합에 비용적 도움을 제한적으로나마 줄 수 있고, 신규 협동조합에게는 역사를 통해 협동의 역사를 배우는 역할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생협은 대중적인 소비자를 조합원으로 확보하고 있는 데서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조합원 교육 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겠다.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합원의 눈높이를 파악하고 다가가려는 노력에서 혁신을 아끼지 않는 것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오래된 협동조합을 통해 조합원 간 끈끈한 우애를 쌓고 교육을 통해 주인으로서 책임을 다 하도록 하는 시스템은 새로운 협동조합이 배울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신규 협동조합들이 협동조합들이 고전하는 가장 큰 애로는 시장 확보나 판로라고 한다. 지역차원에서 협동조합끼리 공동사업을 교육, 홍보, 상호거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겠다. 예를 들어 협동조합을 재밌게 체험하도록 게임 기구를 개발하는 엑투스의 게임 도구를 상호 구매하고, 테스트하여 보완 사항을 조언해 줄 수 있다. 또한 교육 협동조합은 사교육의 대안적 형태로서 소비자 조합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거래하는 것은 협동조합간 협동의 방식으로 판로를 해결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

4. 지역사회와 함께 영위하는 협동조합

부익부 빈익빈과 극단적 양극화는 현재의 불행뿐만 아니라 미래의 희망마저 빼앗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협동조합은 단순한 빈곤 구제를 지향하지 않는다. 극빈층을 지역사회가 구호 방식으로 구제하려고 들기 보다는 자활할 수 있도록 방안을 준데서 그것이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의 역할이 될 것이다. 협동을 통해 얻은 성과를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할 때, 혹은 지역의 욕구를 협동조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와 주체 역할을 하는 것은 협동조합이 병행해야 할 덕목이기도 하다. 협동조합들끼리 우애와 연대를 통해 실현한 더 큰 협동은 지역사회에서 단순한 가난의 구제 방식을 넘어 복지를 실천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로치데일 공정 선구자 조합원들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는 밀가루를 제 값을 주고 공동구매하기 위해서 생겨난 노동자들의 소비조합이었지만 그들이 실천하고 정립한 조합 운영 원칙과 선구자들의 헌신성은 오늘날 협동조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토대가 되었다.

시작한 협동조합은 사업도 어렵고, 조합원들을 주인으로 세우기도 만만치 않다. 운영 원칙을 고수하며 사업으로서 지속가능해야 하는데 원론적인 협동조합 모델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결국 사업을 시작한 선구자들이 초심을 잃지 않으며, 애초 협동조합을 하고자 했던 취지가 무엇이었는지를 새기며, 토론과 합의를 통한 민주적 운영 원리를 잃지 않는 것이 협동조합으로 가는 최소한의 덕목일 것이다. 협동조합은 사업을 위해 지속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영위해 가는 우리 삶의 중심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날 것이라 기대한다.